

한국, 이번없는 한 브라질 가졌지만...

'땡 축구' 결정력으로 안된다

18일 이란전 대패 앞에선 본선-경기력 업그레이드 서둘러야

한국 축구대표팀이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눈앞에 뒀다.

한국은 11일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1-0으로 꺾고 A조 1위(4승2무1패·승점 14) 자리를 굳건히 했다.

이어진 12일 오전(한국시간) 치러진 이란과 레바논의 경기에서 이란은 4-0 대승을 거둬 우즈베키스탄(3승2무2패·승점 11)을 제치고 조 2위(4승1무2패·승점 13)로 올라섰다. 한국의 최종 성적은 최종예선 8차전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마지노선인 2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최종전에서 카타르에 승리하고, 한국이 이란에 패배한다면 이란이 조 1위를 확정한다.

◇18일 울산에서 이란과 최종전=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승점이 14로 같아져 골 득실로 2위를 가리게 된다. 다만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른 상황에서 한국의 골 득실은 +7, 우즈베키스탄은 +1로 아직 격차가 커서 한국이 유리하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다. 우즈베키스탄이 홈 최종전에서 카타르를 맞아 대량 득점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란이 최종예선 7차전에서 레바논에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라도 진출하겠다는 4위 카타르(2승1무4패·승점 7)의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졌다.

한국이 이란에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면 우즈베키스탄과 카타르전 결과를 따질 것도 없이 조 1위로 본선에 직행한다.

한국과 이란의 최종전은 18일 오후 9시 울산 문수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같은 시간 우즈베키스탄은 카타르를 홈으로 불러들여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최강희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인 2012년 2월 2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4-2승)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까지 총 13경기를 치르면서 7승2무4패(23득점·19실점)의 성적표를 거졌다. 경기당 평균 1.77득점에 1.46골을 내졌다.

그러나 준수한 성적표로 보이지만 13차례 A매치 가운데 대부분 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참 뒤진 월드컵 최종예선 상대국이었다. 스페인(1-4패)과 크로아티아(0-4패) 등 세계적인 수준의 팀에는 완패를 면치 못했다.

이란과의 최종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본선에 나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내다보면 지금의 경기력은 격정스럽기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최 감독 후임 선정 속도 내야= '조광래 체제'에서 대표팀은 12명의 선수가 골을 기록했다. 다양한 포지션 변화와 패스 축구를 지향하다 보니 득점자의 분포도 넓어졌다.

반면 '최강희 체제'에서 골 맛을 본 선수는 9명이다. 전방 공격수를 향한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이 펼쳐지면서 득점도 이근호(상주·6골)와 이동국(전북·5골)에게 몰렸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순위	팀	승	무	패	득점	실점
1	한국	4	2	1	+7	14
2	이란	4	1	2	+5	13
3	우즈베키스탄	3	2	2	+1	11
4	카타르	2	1	4	-4	7
5	레바논	1	2	5	-9	5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표팀에서 다양한 전술이 사라지고, 주전들의 변화도 심해지면서 결정력 저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대표팀의 경기력과 결정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문성 SBS 해설위원은 "사령탑이 바뀌게 되면 선수 기용과 전술이 바뀌게 돼 대표팀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최강희 감독은 스스로 시한부 사령탑의 한계성 속에서 '이기는 축구'만 해왔다"며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 7차전은 이기는 전술이 불가피했지만 오직 김신욱(울산)의 머리로 롱 패스를 올린 전술은 최악이었다. 새로운 감독이 오면 공격전에 변화가 다른 포지션보다 큰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도 한국 축구가 달라지려면 대한축구협회가 하루빨리 최강희 감독의 후임자 선정에 속도를 내서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의 목표를 설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공포의 '검빨 유니폼' 입는다

KIA, 내일 SK전 올드 유니폼 데이

공포의 호랑이 유니폼이 부활한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올드 유니폼데이 행사를 연다. 2011년 7월 이후 두 번째 올드 유니폼데이이다.

이날 선수들은 팬 서비스 일환으로 검정 하의와 빨간 상의의 '검빨'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다.

KIA는 또 공익 연계마케팅의 일환으로 대



한적십자사와 함께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공익캠페인도 펼친다. 선수들은 올드 유니폼 상의 뒷편에 헌혈 홍보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를 뽀낸다.

헌혈 버스도 운영한다. 헌혈자에게는 양현종의 찬벌 사인본이 증정된다.

KIA 마케팅팀 장관기 팀장은 "올드 유니폼데이 행사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구단의

공익활동과 연계하여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올드 유니폼데이를 계기로 더욱더 비상하는 타이거즈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구는 최상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장(헌혈 98회)이 하고, 시타는 김성희 광주혈액원 봉사회 부회장(헌혈 80회)이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승 쌓은 임준섭 "선발 계속하고 싶어요"

① 덕아웃 말말말

▲사실 저는 해태가 싫어요='검빨'의 올드 유니폼에 대한 얘기를 하던 윤석민, 구리출신이라 어린 시절에 OB 팬이었는데 해태에 매번 저서 싫어했었다면서.

▲(방망이에서) 맑은 소리가 나=일본 공인구 반발력에 대해 얘기하던 선동열 감독, 일본 타자들이 쓰는 방망이의 차원이 달라서 공이 더 멀리 나가기도 한다며.

▲누가 나가길 바라왔네=나지완과 전날 NC 선발 에릭의 투구폼에 대해 얘

기하던 김종국 주루코치, 나지완이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 고전했다며 세트 포지션 승부가 훨씬 편했다고 하자.

▲선발 계속하고 싶어요=11일 선발 복귀전에서 시즌 2승에 성공한 임준섭,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선발로 나와서 좋다며.

▲(임준섭이 형이 쓰는 거예요=한승혁, 라카툼으로 배달된 피자의 출처를 묻자.

▲박기남 선수가 트레이드됐네요=KIA 홍보팀, 팬들 사이에 트레이드 루머가 돌면서 야구 게시판에 기사처럼 글이 올라왔더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호남·정경호·유종현 K리그 챌린지 주간 베스트11

광주 FC의 정규리그 홈 첫 승을 이끈 김호남이 K리그 챌린지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K리그 챌린지 13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경찰 축구단과의 승부에서 전반 25분 결승골을 터트린 광주의 신 공격수 김호남이 시즌 첫 홈 승리를 이끌며 베스트 11이 됐다. 김호남은 "저물적인 플레이로 존재감을 높이며 팀의 주요 공격 옵션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허리와 수비를 책임진 정경호와 유종현도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고양 중합운동장에서 고양 HI FC를 상대로 14라운드 경기를 갖고 8경기 무패(FA컵 포함)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선음악회

2013. 6. 21(금) 18:3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Price **88,000**원 (VAT포함)

|예약및문의 T.062) 228-4711~2, 221-4101~3
 |주최및주관 하츠앤핸즈, 신양파크호텔
 ※12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경품추첨